



위의 사진은 이번 연휴에 저의 본가인 부산에 내려와 산책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해운대가 보이는 산책로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위의 사진에 나온 건물은 해운대에서 고층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으로, 실제로 보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미래도시같은 느낌을 줘서 산책할 때마다 좋은 풍경이 되곤합니다.

다만 이 사진을 제가 컴퓨터로 표현할 때에는 하늘, 바다, 건물 모두 푸른 계통의 색이였기에 조금 더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시간대를 석양이 지고 있는 저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리는 최대한 사진과 비슷하게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건물은 옅은 파란색, 바다는 진한 파란색 계통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에 있는 여러 개의 창문을 모두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모든 건물의 창문을 선분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각각의 건물에 디자인을 넣는 형식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